

‘문화가 무엇인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 경주

장영우 | 문학평론가, 동국대 교수

경주는 도시 전체가 거대한 박물관이다. 그곳은 박혁거세가 나라를 세운 뒤 경순왕대에 이르기까지 천 년을 지속해온 신라의 문화가 옛적 그대로인 듯 남아있어 시간의 흐름을 잊게 한다. 서울이 수도(首都)로 지정된 지 육백 년이 넘었다고 자랑하지만, 서울에서 옛 조선의 모습을 찾아보기란 한강에서 쏘 가리 낚기만큼이나 어렵다. 하지만 경주에는 임자가 누구인지도 가려지지 않은 거대한 무덤들이 즐비하고, 신라 시대의 건축물이 옛 모습 그대로 도심 한 복판에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전혀 이 질감을 느끼지 않는다. 시내 곳곳에 널려 있는 무덤은 죽은 이의 유택(幽宅)이라기보다 마음놓고 올라가 미끄럼을 타도 좋은 놀이터 같고, 계림이나 남산 등도 특별한 신성공간(神聖空間)이 아니라 앞동산처럼 친근하게 느껴진다. 특히 노동동과 노서동은 ‘고분공원’이란 이름이 붙을 정도로 고분이 뽁뽁하게 임립(林立)해 있다.

경주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선 날, 일기예보가 심상치 않았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내리더니,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중부 이남 지방에 많은 눈이 내리고 기온도 뚝 떨어질 거라는 기상청의 위협적인(?) 예보였다. 아니나 다를까, 청주를 지날 무렵부터 훔날리던 눈발이 추풍령 부근에선 제법 시

야를 가릴 정도로 굵어지기 시작했다. 눈 내린 도로를 주행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다. 잔뜩 긴장을 하다보니 어느새 경주시내로 진입하는 이정표가 보인다. 아뿔까! 이번에도 ‘여근곡’을 못보고 지나친 것이다. 일부러 그곳까지 가기는 어려울 듯하여 경주 가는 길에 먼발치로나마 그 오묘한 지세(地勢)를 관찰하려 했는데 눈 때문에 그냥 지나치고 만 것이다.

경주에는 신라의 전설이 깃들어 있다

경주에 가려면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 우선 넉넉한 시간. 어떤 이는 경주를 제대로 알기 위해선 적어도 한 달이란 시간도 오히려 모자란다고 했지만, 생활인으로선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3박4일 정도의 시간적 여유는 필요하다. 그래야 주마간산격이나마 경주 일대의 유적을 두루 구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여행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고등학생의 수학여행처럼 본 것은 많아도 기억나는 것은 하나도 없는 지극히 비생산적인 여행이 될 것이다. 셋째, 여행목적에 따라 자료를 준비하되, 「삼국유사」는 반드시 여행 전에 미리 읽어 둘 것을 권하고 싶다. 경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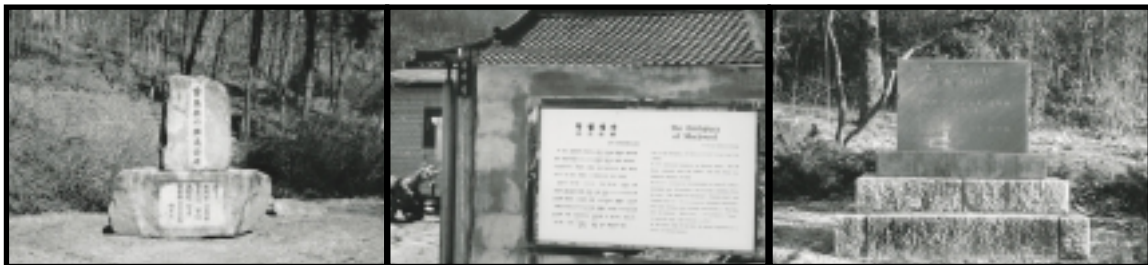


박목월은 건천읍 모량리 571번지에서 태어났다

곳곳에는 신라의 개국신화와 온갖 전설이 깃들어 있다. 가령, 경주시내의 계림(鷄林)은 김알지의 탄생 설화의 배경이고, 아사달을 그리다 끝내 푸른 연못에 몸을 던진 아사녀의 애달픈 전설이 깃든 영지(影池)의 물은 천년 전이나 다름없이 푸르다. 「삼국유사」는 이천년 전의 서라벌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소상하게 알려준다. 물론, 시내 서점에는 경주에 관한 친절한 여행답사기가 여러 종 꽂혀 있다. 어쩌면 경주 여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책은 이런 종류의 답사 보고서일지도 모른다. 사실 「삼국유사」는 선뜻 손에 잡히지 않는다. 무엇보다 한자어가 많고 문장도 구투(舊套)여서 쉽게 읽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기회가 아니면 언제 「삼국유사」를 읽을 기회가 있겠는가.

대구를 거쳐 영천을 지나 경부 고속도로의 마지막 터널을 지나면 곧 경주다. 터널을 통과한 뒤 이내 속도를 줄여 여근곡을 보리라 생각했었지만, 눈길에 신경쓰다 그만 놓치고 말았다. 경주에 몇 번 왔으면서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유홍준 교수와 신영훈씨의 글을 보고 「삼국유사」에 나오는 여근곡의 위치를 정확히 알게 되었다.

영묘사 옥문지(玉門池)에서 겨울인데도 개구리가 사나흘이나 울었다. 백성들이 이상히 여겨 왕에게 물으니, 왕은 급히 알천과 필탄에게 정병 2천 명을 주어 “서쪽 여근곡에 가면 적병이 있을 테니 죽이라”고 명했다. 두 사람이 부산(富山) 아래 여근곡을 찾아가보니 과연 백제군사 5백 명이 매복하고 있어 그들



을 모두 죽였다. 신하들이 그 연유를 왕에게 물으니 선덕여왕이 태연하게 대답하였다.

“개구리가 성난 모습은 병사의 모습이고, 옥문이란 여자의 생식기를 말한다. 여자는 음이고 그 빛이 백색이며 백색은 서쪽을 가리키므로 군사가 서쪽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자의 생식기는 여근(女根)에 들어오면 반드시 죽으니(男根入於女根則必死矣) 이 로써 백제군을 쉽게 물리칠 줄 알았다.”

이 내용은 「삼국유사」 기이(紀異) <선덕왕 지기삼사(善德王知幾三事)>에 실려 전한다. 선덕여왕의 총명함을 알려주는 세 가지 사건을 적은 것인데, 여왕은 모란을 그린 그림에 나비가 없는 것을 보고 그 꽃에 향기가 없음을 알았고 자기가 죽을 날을 미리 알아 도리천에 묻으라는 유언을 내리기도 했다. 선덕여왕과 관련한 설화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어떻게 여왕이 남자 신하들 앞에서 ‘남근 이니’ ‘여근 이니’ 하는 직설적인 어휘를 입에 담을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더군다나 결혼도 안 한 여왕의 몸으로 어찌 ‘남자의 생식기가 여자 몸에 들어오면 반드시 죽는다’는 이치를 알 수 있었을까. 한 마디로 선덕여왕은 대단한 여성이었던 것 같다. 얘기가 다소 빛나갔지만, 경주에는 이런 재미있는 설화가 무진장하게 널려 있다. 그리고 그것들 대부분이 「삼국유사」에 실려 전한다.

경주는 김동리 소설의 공간적 배경

경주 출신의 현대 문인으로서는 김동리와 박목월을 첫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다. 김동리는 1913년 성건리에서 태어났으나, 현재 그의 생가는 흔적조차 찾을 길이 없다. 이 점은 박목월의 생가(건천을 모량2리)가 옛 모습은 없어졌으나 집 앞에 ‘목월 생가’라는 표지만이라도 있는 것과 뚜렷하게 대조된다. 김동리의 본명은 창귀(昌貴)이다(우리가 알고 있는 ‘시종(始鍾)’은 그의 아명이다). 그는 1934년 김창귀란 본명으로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응모하여 당선된다. 그러나 이때의 당선작은 소설이 아니라 시(「백로」)였다. 그는 이 시에서 백로를 “조출한 이 강산”, “점잖은 이 나라의 녀”의 상징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듬해(1935년) 그는 「화랑의 후예」란 소설로 조선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었는데, 박태원은 이 작품에서 이태준의 「불우선생(不遇先生)」 냄새가 난다는 지적을 했다. 이 말에 충격을 받은 김동리는 다시 신춘문예에 응모, 1936년 동아일보에 「산화(山火)」로 당선된다. 그러니까 그는 1934년부터 연속 3년 동안 당시의 대표적 일간지 신춘문예에 거듭 당선되는 희귀한 기록을 세운 것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는 창귀도 시종도 아닌 동리(東里)란 이름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는 애초에 ‘동방의 허무 탄 뜻’으로 동허(東虛)를 호로 삼으려 했으나 그의 백형 범

부 선생의 권유에 따라 ‘동리 탄 호를 갖게 되었다. 동리란 신라시대의 악성(樂聖) 백결선생이 살던 동네 이름이기도 하고, 「논어」의 <헌문편(憲問篇)>의 한 구절 ‘동리자산(東里子產)에서 탄 것이기도 하다. 참고로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공자 말씀하시되, 정나라에서는 외교문서를 작성할 때 비심이 초안을 잡으면 세속이 내용을 검토하고 외교관 자우가 문장을 더욱 세련되게 가다듬었으며 동이에 사는 자산이 이를 윤색하여 완성하였다(子曰 爲命 裨諲草創之 世叔討論之 行人子羽修飾之 東里子產 潤色之).”

김동리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무녀도」는 경주를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특히 모화가 빠져 죽은 예기소(藝妓沼)는 동국대 경주캠퍼스로 들어가는 경대교의 북쪽 300m 거리에 자리하고 있다. 「무녀도」에 묘사된 예기소의 풍경은 불과 한 문장에 지나지 않는다.

곳이 열린 백사장서 북쪽으로는 검푸른 솟몰이 깊은 비밀과 원한을 품은 채 조용히 굽이 돌아 흘러 내리고 있었다(명주꾸리가 하나 들어간다는 이 깊은 소에는 해마다 사람이 하나씩 빠져 죽게 마련이라는 전설이었다).

그렇싸해서 그런지, 예기소는 묘하게 음산한 기분이 드는 연못이다. 이곳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예기소에서는 거의 해마다 익사사고가 난다는데, 동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전설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모양이다.

김동리의 또다른 대표작 「황토기」의 공간적 배경은 금오산 밑자락의 황토골이라는 곳으로 설정되어 있다.

솔개재에서 금오산 쪽으로 뻗쳐 내리는 두 산맥이다.

등성이를 벌거벗은 채 십 리, 시오리씩을 하나는 서북, 또 하나는 동북으로 뛰어내려와서는, 거기 황토골이라는 조그만 골짜기 하나를 낳은 것뿐으로, 그 앞을 흘러가는 냇물을 바라보며, 동네 늙은이들의 입으로 전하는 상룡(傷龍), 또는 쌍룡(雙龍)의 전설을 이룬 그 지리적 결구는 여기서 끝을 맺는 것이다.

「황토기」의 첫 부분이다. 황토골이 실제 지명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소설에 묘사된 곳을 찾아 ‘이곳이 김동리의 소설 「황토기」의 공간 배경이다’라는 안내 표지 하나 세우면 어떨까. 예기소도 마찬가지다. 굳이 그 연못을 찾아 볼 사람이 있겠나 싶지만, 누군가가 찾아와 그런 표지를 보면 얼마나 반가울 것인가.

김동리의 문학세계는 매우 다양하고 웅숭깊다. 그는 인간의 운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역마」·「황토기」 등의 작품을 썼고, 이를 다시 종교의 문제로 파고들어 「무녀도」·「등신불」·「사반의 십자가」 등의 대표작으로 형상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관심은 「홍남철수」, 「밀다원시대」 등 6·25를 제재로 한 작품에 깊이 투영되어 있다.

경주, 박목월이 조지훈과 처음 만나는 곳

김동리보다 세 살 연하이며 대구 계성중학 후배이기도 한 박목월(본명 영종泳鍾, 1916 ~ 1978)은 건천읍 모량리 571번지에서 태어났다. 동리에 비해 유족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대구 계성중학에 다니며 동시를 쓰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사람치고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 엄마소도 얼룩소 / 엄마 닭았

네 한글 동시를 모르는 이는 별로 없을 테지만, 이 동시의 작자가 박목월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는 이도 많지 않을 것이다. 경주 황성공원의 김유신 장군 동상 근처에 있는 산책로에 박목월 노래비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얼룩 송아지」가 음각되어 있다.

계성학교를 졸업한 박영종은 금융조합 서기로 근무하며 계속 동시를 썼지만 문학적 갈증은 해결되지 않았다. 계성학교 선배이자 절친한 친구였던 동리가 1935년 신춘문예에 당선된 것도 그로서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 그러던 중 그는 금융조합 동료의 소개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연이 무척 재미있다.

1937년 크리스마스, 기계에서의 출장 업무를 마치고 다시 진주로 가 선을 봐야 했던 영종은 기차에서 인상적인 처녀를 만나 제 소개를 한다. 먼저 이름과 직장을 대고, 지금 선을 보러 가는 중이라는 얘기를 하고 헤어진 것이다. 그날 밤 그는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웬 노인이 나타나 “네 아내 될 사람은 성이 유씨(劉氏)” 하고 말하곤 사라졌다. 이듬해 봄, 어느 일요일에 혼자 불국사 구경을 갔다가 그곳에서 동료 직원을 만나 그의 형님의 처제를 소개받고는 깜짝 놀란다. 그녀는 지난 크리스마스 때 기차에서 만난 바로 그 처녀였기 때문이었다. 다음날 동료를 통해 그 처녀에 대한 정보를 들은 영종은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유익순(劉益順), 공주에서 여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전으로 진학하려다 부모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실의에 잠겨 있던 터였다. 일은 말 그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두 사람은 1938년 공주에서 혼인식을 올렸고, 1939년 경주읍 황남리 어느 농가의 단간방에서 찾아들 동규(현재 서울대 국문과 교수)를 낳는다.

박영종이 ‘목월(木月) 이란 선취(禪趣)가 느껴지

는 호를 갖게 된 것은 『문장』에 응모할 이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김동리의 백형에게서 ‘소원(素園) 이란 호를 받았으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필명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의 호는 수주 변영로와 소월 김정식에게서 한 자씩 따온 것이다. 수주(樹洲)에서 ‘나무(木) 를, 소월(素月)에서 ‘달(月)’ 을 각각 따와 새로 지은 이름이 ‘목월 이다. 『문장』은 일간지의 신춘문예와 달리 세 번의 추천과정을 거쳐야 등단으로 인정한다. 하여 신춘문예에 당선한 작가나 시인도 다시 『문장』의 추천과정을 거친 이도 있을 정도였다. 1940년 9월 박목월은 3회의 추천과정을 완료함으로써 당당한 시인이 된다. 당시 목월을 추천했던 정지용의 평가는 목월시의 특징과 향방



이정록 시비

을 날카롭게 예견한 명문이다.

“북에 김소월이 있었거니 남에 박목월이가 날 만
하다. 소월의 툭툭 불거지는 삭주구성조는 지금 읽어
도 좋더니 목월이 못지 않아 아기자기 섬세한 맛이
좋다.(……) 요적 수사(諷的 修辭)를 다분히 정리하
고 나면 목월의 시가 바로 조선시다.

갓 등단한 신인을 소월과 맞세워 극찬할 수 있었
던 것은 그만큼 목월의 시가 뛰어났다는 말이 된다.

박목월의 이름 앞에는 항상 ‘청록파 탄 관사가
따라 붙는다. 박목월·조지훈·박두진, 세 사람이
해방 후 공동시집을 출간하면서 시집 제목을 ‘청록
집 이라 붙임으로써 생긴 명칭이다. 조지훈과 박목
월의 만남도 아름답다. 지훈이 먼저 편지를 보냈고
목월이 이내 답장을 함으로써 두 사람은 경주에서
처음 만난다. 그때 지훈은 「완화삼」이란 시를 목월
에게 주었는데 거기에는 ‘목월에게 탄 부제가 붙어
있었다. 목월도 그 자리에서 화답했다. 그러나 그
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그네」가 아니다. 중등학
교 이상을 마친 사람이면 거의 기억하고 있을 명편
「나그네」는 조지훈의 「낙화」란 시에 대한 화답시인
것이다(이형기 편, 「자하산 청노루」 참조).

낙화(落花)

꽃이 지기로소니 / 바람을 탓하라
주렴 밖에 성긴 별이 / 하나 둘 스러지고
귀족도 울음 뒤에 / 머언 산이 닳아서다.
춧불을 꺼야하리 / 꽃이 지는데
꽃 지는 그림자 / 뜰에 어리어
하이얀 미담이가 / 우련 붉어라.
묻혀서 사는 이의 /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 저어하노니
꽃이지는 아침은 / 울고 싶어라.
나그네
— 술 익는 강마을의 저녁 노을이여 — 지훈

강나루 건너서 /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 남도 삼백리
술익는 마을마다 / 타는 저녁 놀
구름에 달 가듯이 / 가는 나그네

등단은 했으나 발표할 지면이 마땅치 않았던 일
제말기에 목월은 새로 쓴 작품을 땅에 묻어두고 있
었다. 온화하고 여린 성품을 가진 그였지만 일본어
로는 작품을 쓰지 않으려는 강기(剛氣)와 언젠가 땅
속에 묻은 시를 꺼내볼 날이 있으리라는 희망을 잃
지 않았던 것이다.

황성 공원에 그의 노래비가 있고 보문단지에는
목월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의
글씨를 그대로 새긴 ‘박목월시비(朴木月詩碑)가 조
형미있게 자리하고 있다.

바위에 새긴 역사, 「신라의 달밤」 노래비, 이경록, 유치환의
시비

보문단지에서 4번 국도를 타고 추령터널을 지나
면 덕동호가 보인다. 그 호수를 끼고 드라이브하는
맛도 괜찮다. 이 길은 문무왕의 뼈를 뿌린 곳 또는
수중릉(水中陵)으로 알려진 대왕암으로 통한다. 삼
국통일을 이룬 문무왕은 바다 저편의 왜구가 걱정되
어 편히 땅속에 묻힐 수도 없었다. 그는 “내가 죽어
용이 되어 불법을 받들고 나라의 평화를 지킬 터이
니 내 유해를 동해에 장사지내라”는 유언을 남겼다.



고유섭 기념비

이 대왕암을 보다 의미있게 관찰하기 위해서는 대본 초등학교 앞의 이견대와 동해구(東海口)란 표지석 아래 우현 고유섭 선생의 기념비가 선 자리를 찾는 게 좋다. 고유섭(1905 ~ 1944)은 일제 시대에 우리 미술사와 미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여 한국미술을 처음으로 학문적 차원으로 끌어올린 미술학자이다. 그는 일제의 침략에 항거하여 문무왕의 호국 의지를 기리는 시를 썼는데, 그것이 기념비 뒤에 새겨진 「대왕암」이다. 이 시는 학자가 쓴 것이어서 시 자체로는 큰 평가를 받을 수 없으나, 글쓴이의 단호한 항일정신과 선비의 기개를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대왕의 우국성령은 / 소신(燒身) 후 용왕 되사 / 저
바위 길목에 / 숨어들어 계셨다가 / 해천(海天)을 덮고
나는/적귀(敵鬼)를 조복(調伏)하시고 // 우국지정이

중코 또 깊으시매 / 불당에도 들으시다 / 고대(高臺)
에도 오르시다 / 후손은 사모하여/용당(龍堂)이요 이
견대라더라 // 영령이 환현(玄現)하사 / 주이야일 간
죽세로 / 부왕부래 전해주신 / 만파식적(萬波息笛)
어이하고 / 지금은 감은고탑(感恩古塔)만이 / 남의
애를 끊나니 // 대중천 복종해를 / 오작아 뉘지마라 /
창천이 무섭거늘/네 울어 속절없다 / 아무리 미물이
라도 / 뜻 있어 운다 하더라.

이 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들은 대부분 「삼국유사」에 실려 있다. 경주여행을 하기 전이나 그 후에 「삼국유사」를 반드시 읽어야 하는 소이(所以)가 여기에 있다.

뭐니뭐니해도 경주하면 불국사와 석굴암이 제 일이다. 경주시내에서 불국사로 가기 위해선 7번 도로를 타고 가다 구정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신라의 달밤」 노래비가 서 있다. 대중가수 현인이 불러 크게 히트한 노래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현인의 「신라의 달밤」은 세대를 뛰어넘어 모든 이가 즐겨 부르는 국민가요라 할 수 있다. 구정삼거리에서 불국사까지 가는 짧은 시간에 현인 특유의 바이브레이션 창법을 흥내내며 ‘신라의 달밤’ 노래를 흥얼거리는 흥취도 그런대로 즐길만하다.

불국사 부근에 경주 출신의 청년 시인을 기리는 작은 시비가 있다. 이경록(李暎錄). 월성군 강동면 나산리에서 1948년에 태어나 서라벌예대 문창과를 졸업하고 1974년 《월간문학》 신인상을 받으며 시인으로 등단했으나 1977년 서른의 나이로 요절했다. 망자의 친구들이 세운 조출한 시비 뒷면에는 「사랑가」란 시 한 편이 새겨져 있다.

불국사(佛國寺). 현세를 정토(淨土)로 바꾸려는 신라인의 뜨거운 불심이 결집된 곳. 그런데 불국사 창건 연대는 「삼국유사」의 기록(경덕왕 10년, 751년)과 「불국사고금창기」의 기록(법흥왕 15년, 528년)이 각각 달라 헛갈리는데, 「삼국유사」의 기록이 더 신빙성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불국사에 얹힌 설화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것은 김대성의 환생담이다. 가난한 머슴으로 생활하던 그가 흥륜사에 보시를 한 뒤 죽었는데, 그날 밤 김문량이란 재상이 이상한 일을 겪었다. “모랑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네 집에 환생하리라”는 소리가 지붕에서 들려왔던 것이다. 그의 아내가 곧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왼 손을 펴지 않다가 이레만에야 폈다. 그 손바닥에 ‘대성 이란 글자가 새겨진 쇠붙이가 있어 아이 이름을 그대로 ‘대성 이라 부르고 전생의 어머니도 함께 살게 하였다. 불국사는 장성한 김대성이 현생의 부모(김문량 내외)를 위해 지은 것이고, 석불사(석굴암)은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 지었다는 것이다.

불국사 경내로 들어서면 석축 위는 불국(佛國)이고 그 아래는 중생(衆生)의 세계로 나뉜다. 불국사에는 백운교와 청운교, 다보탑과 석가탑 등 국보급 보물이 수도룩하다. 이 문화유산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전문가에게 미룰 수밖에 없다. 석가탑은 흔히 ‘무영탑(無影塔)’이라고도 불리는데, 백제의 석공 아사달과 그의 아내 아사녀의 슬픈 사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부여의 시인 신동엽은 영지에 빠져 죽은 아내의 모습을 바위에 새기던 아사달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너를 조각하련다 너를 새기련다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이 하늘 끝나는 날까지
이 하늘 다하는 끝 끝까지



靑馬 詩碑

찾아다니며 너를 새기련다
바위면 바위에 돌이면 돌몸에
미소 짓고 살다 돌아간 네 입술
눈물 짓고 살다 돌아간 네 모습
너를 새기련다
— 신동엽, 「너를 새기련다」 부분

유홍준에 따르면 ‘석굴암’은 ‘석불사’로 불러야 옳다고 한다. 필자도 그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석굴암’이란 이름이 워낙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 친숙해졌으므로 여기서는 그대로 쓰기로 한다. 석굴암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역시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2」를 참조하거나 성낙주의 「석굴암 그 이념과 미학」을 보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성낙주의 책은 소설가의 기발한 상상력과 기존 연구에 대한 도전의식이 돋보이지만 전문가의 글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고 읽어야 한다. 석굴암에 가면 안타까운 한숨이 터져 나온다. 현재 석굴암은 종합병원에 입원한 중환자처럼 온갖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일제시대에 세 차례에 걸친 복원공사의 후유증이 너무도 심각하여 지금으로선 어떻게 달리 손댈 방법도 없는 것이다. 콘크리트와 시멘트로 뒤발을 해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석굴암은 지금 기계에 의해 간신히 습도와 온도를 조절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유리막에 갇힌 부처님만 힐끗 보고 되돌아 나와야 한다. 더군다나 석굴암 부근 어디에서도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재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없다. 유홍준 교수 말대로 “세계에서 현찰수입이 가장 많은 석불사의 석굴을 관리하는 석굴암과 문화재관리국이 관람객을 위하여 한 일은 결국 유리장으로 막은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없는 셈이다. 하지만 경주민속공예촌 한 구석에 자리한 신라역사과학관에 가면 어느 정도 불만이 가셔진다. 이곳은 원래 목조각을 수출하는 석우일(昔宇一)이란 이가 세운 사설 미술관으로 사재를 털어 석굴암의 모형도와 해부도를 제작해 일반에게 전시하고 있다. 그리고 단체 손님이 오면 이곳 직원이나와 침성대와 석굴암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는데, 관람객들의 질문에 친절하고 상세히 응해준다. 경주에 와서 빠뜨리지 않고 들러야 할 두 곳을 말하라면 그 하나가 국립경주박물관이고 다른 한 곳으로 여기 신라역사과학관을 들고 싶다.

불국사에서 석굴암으로 가는 길 초입에 청마 유치환의 시비가 숨어 있다. 물론 청마 유치환은 경주 사람이 아니라 통영이 고향이다. 그러나 그는 경주에서 오랫동안 교편을 잡았다. 경주고와 경주여중

교장을 지낸 그는 노년을 경주에서 보내고자 했으나 1967년 2월, 불의의 교통사고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그를 기리는 제자들이 선생의 시비를 경주의 핵이라 할 불국사 정문 옆 석굴암으로 올라가는 도로 초입에 세워 놓았으니, 경주에서 말년을 맞고자 했던 그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도 잘못이 아니리라.

목놓아 터트리고 싶은 통곡을 견디고
내 여기 한 개 돌로 눈감고 앉았노니
천년을 차거운 살결 아래 더욱
아련한 핏줄, 흐르는 숨결을 보라
(……)
뉘라 알랴!
하마도 터지려는 통곡을 못내 견디고
내 여기 한 개 돌로
적적(寂寂)히 눈감고 가부좌하였노니.
— 유치환, 「석굴암대불」 부분

경주 시내를 걷다 보면 묘한 감회에 사로잡힌다. 눈에 보이는 건물과 차량, 그리고 사람들의 입성은 모두 현대의 그것인데 느닷없이 천년 전의 거대한 봉분이 눈앞을 가로막고 나서기 때문이다. 또 하나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것은, 경주 시내가 온통 무덤투성이인데 신라시대 왕성은 어디에 있었나 하는 게 갑자기 궁금해진다. 그도 그럴 것이 옛 신라 왕성은 흔적조차 찾을 길 없고 반월성터와 안압지를 통해 신라의 영화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어쩌면 당시에는 궁궐 안에 왕릉을 조성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되기도 한다. 그렇지 않다면야 시내 한 복판에 그렇게 많은 고분이 밀집해 있을 수 없지 않겠는가.

어쨌거나 경주 시내에는 볼 것이 널려 있다. 지

김동리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무녀도」는 경주를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특히 모화가 빠져 죽은 예기소(藝妓沼)는 동국대 경주캠퍼스로 들어가는 경대교의 북쪽 300m 거리에 자리하고 있다. 「무녀도」에 묘사된 예기소의 풍경은 불과 한 문장에 지나지 않는다.

김동리의 또다른 대표작 「황토기」의 공간적 배경은 금오산 밑자락의 황토골이라는 곳으로 설정되어 있다.

금은 겨울철이어서 적당하지 않지만, 경주시내 유적은 가능하다면 자전거를 타고 관람하는 게 여러모로 좋을 듯하다. 대릉원, 반월성, 첨성대, 계림, 국립경주박물관 등이 지호지간(指呼之間)에 위치하고 있어 승용차로 움직이는 게 되레 번거롭다. 하지만 올겨울은 유난히 춥다. 경주 기온도 영하 십도 이하로 내려갔고, 부산과 대구 등지에는 사십 년만에 큰 눈이 내려 혼잡을 빚었다는 소식이다. 아침 일찍 토함산을 올랐을 때는 바람이 어찌나 세게 불던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았고, 경주박물관에 들렀을 때도 바람은 칼날보다 예리하게 목덜미를 파고들었다. 그 때문이었을까, 그 어느 때보다 넉넉한 마음으로 박물관을 둘러 볼 수 있었다.

경주 박물관에 들어서면 오른 편에 거대한 종이 매달려 있는 게 첫눈에 들어온다. 그것이 바로 ‘에밀레종 이란 이명으로 더 알려진 성덕대왕신종이다. 높이 3,7m, 둘레 7m, 무게 20~22톤의 이 거대한 종은 서기 770년에 완공되었으나, 현재의 과학 기술로도 이와 똑같은 종을 제작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에밀레종의 장중하고도 맑으며 긴 여운을 남기는 소리는 세계 그 어떤 종소리보다 단연 뛰어나다고 한다. 에밀레종의 주조 과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1」에 잘 요약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둘러보고 경주 여행을 마무리 짓기로 하자. 국보급 문화재와 성소(聖所)가 많은 경주에 또 하나의 성지(聖地)가 있으나 웬만한 사람들은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 경주 현곡면 금장리에서 영천으로 향하는 925번 도로를 타고 조금 가다보면 가정리가 나오는데, 이곳이 바로 수운 최제우(1824~1864)가 태어나 동학을 세우고 뼈를 묻은 천도교의 제일성지(第一聖地)인 것이다. 가정리에는 수운 선생의 생가는 남아 있지 않고 유허비가 있고, 맞은 편 산중턱에 그의 묘가 있는데 한눈에도 묘터가 범상치 않은 곳이라는 느낌이 절로 든다. 수운 선생의 묘를 중심으로 왼쪽 산골짜기에 천도교 수도원이 있으니 이름을 용담정이라 한다. 이곳에서 수운 선생은 포교를 하며 「용담유사」를 집필했다고 전한다.

잘 아는 것처럼 동학(천도교)의 핵심은 인내천(人乃天) 사상이다. 사람이 곧 한울이라는 동학의 기본정신은 인간의 절대존엄성을 강조함으로써 조선 말기 대다수 민중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급성장할 수 있었다. 그의 사상은 「용담유사」에 잘 정리되어 있거니와, 이 책은 모두 904구의 가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요 내용은 정치·종교적으로 불안해하는 아낙네를 진정시키기 위한 안심가, 도덕을 닦는 방법을 노래한 흥비가 등 8편의 가사와 검결로 구성되어 있다. 수운 선생은 득도하여 포교에 나선지 4

년만에 관군에 체포되어 참형당하고 만다. 그러나 동학의 교세는 하층민들을 중심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가 1890년대에는 수백만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들이 1894년 동학혁명의 주동세력이 되었던 것은 물론이다.

경주는 일생동안 네 다섯번은 다녀 볼 일

이번 경주 여행을 하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점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경주를 몇 번 다니면서 보았던 것은 수학여행 온 학생들과 단체 관광객들뿐이어서 항상 못마땅했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로 지키지 않고 관람 태도도 지극히 불량스럽다. 그들의 관심은 사실 박물관 관람이나 석굴암 답사에 있는 게 아니라 저녁 이후의 광란에 가까운 뒤풀이 쪽에 더 많이 쏠려 있을 것이다. 그렇게 며칠동안의 경주 답사를 마치고 그들은 다시 경주를 찾지 않을 거라는 게 그동안의 내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국립경주박물관을 찾은 날은 1월 14일 일요일이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 날은 몹시도 추워 잠시도 바깥에 서있기 어려운 날씨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에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대부분 한가족이나 연인 사이 같아 보였다. 초등학교에 다닐 법한

아이들의 손을 잡고 유물 앞에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핸드폰으로 안내방송을 듣는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박물관 입구에서 핸드폰을 빌려주는 아가씨에게 물으니, 오늘을 입장객이 적은 편이라고 한다. 보통 주말에는 인근에서 오는 손님들이 워낙 많아 핸드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이 손을 잡고 박물관을 견학하는 풍경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아이들이 자라 부모가 되었을 때 자기 아이들의 손을 잡고 박물관을 찾으면 어떤 감회에 젖게 될까. 경주박물관이 봄부터 가을까지의 관광성수기에만 북적대는 게 아니라 일년 내내 북적거린다는 사실에 나는 적지않이 고무되었다.

경주는 일생 동안 네댓차례 다녀 볼 일이다. 어려서 부모와 함께 오는 경주는 아마도 별 재미도 없고 힘들기만 할지 모르겠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절 수학여행도 그날 밤 지도교사 몰래 마시는 술 생각이나 여흥 때문에 건성건성 지나치기 일쑤다. 이십 대가 되어 마음에 맞는 친구나 연인하고 다시 경주를 찾으면 ‘문화 라는 게 무엇인지 피부로 느끼면서 경주를 둘러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결혼을 하여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온가족이 함께 경주를 찾는다. 이렇게 하면 일생 동안 네다섯번은 경주를 찾을 수 있을 터이고, 그때마다 느낌이 다르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